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폐막...감동·화합으로 빛났다

41개 종목 2만 2676명 열전...1위 경기도·2위 전남도·3위 서울시
전남 금 27·은 33·동 67개 획득...성취상 1위·경기력상 2위 차지

전남 곳곳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일간의 여정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체육회가 주최하고 전남도와 전남체육회가 주관한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지난 24일부터 27일 까지 목포종합경기장 등 전남 57개 경기장에서 펼쳐졌다. 전국 17개 시도 2만 2676명의 선수단은 이번 대회 검도, 볼러, 배드민턴, 볼링, 골프 등 41개 종목에 참여했다. 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김영록 전남지사 등이 참석했으며 27일 오후 4시 30분 폐막식을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회 종합 성적 1위는 경기도가 차지했다. 2위에는 전남도가, 3위에는 서울시가 이름을 올렸다. 대회 개최지인 전남은 1329명의 선수들이 41개 전 종목에 참여해 128개의 메달(금 27개, 은 33개, 동 67개)을 획득했다. 전남은 배구·배드민턴·요트·족구·파크골프·핸드볼에서 종합 1위를, 검도와 씨름은 종합 2위를, 당구·소프트테니스에서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88개(금 14개, 은 12개, 동 13개)의 메달을 따냈던 것과 비교해 성장세다. 또 전남은 개최 시·도의 노고를 인정하는 특별상과 경기 종합 성적이 우수한 시·도에 주어지는 경기력상 2위, 전년대비 종합성적이 향상된 시·도에 수여되는 성취상(1위)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개인 부문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각각 79세 이하부, 69세 이하부 육상 포환던지기 에 출전한 김성봉·오이순 부부는 둘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은숙씨는 육상 트랙종목에서 49세 이하부 100m에서 14초70, 400m에서 1분 09초03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59세 이하부 포환던지기 대회에 출전한 오만평씨는 지난해에 이어 금메달을 따냈다. 34개 종목 792명의 선수가 참가한 광주시는 메달 52개(금 15개, 은 11개, 동 26개)를 획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금메달 11개가 늘었다. 한·일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찾은 일본 생활체육 선수단 151명도 이번 대회 축구, 배드민턴,

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88개(금 14개, 은 12개, 동 13개)의 메달을 따냈던 것과 비교해 성장세다. 또 전남은 개최 시·도의 노고를 인정하는 특별상과 경기 종합 성적이 우수한 시·도에 주어지는 경기력상 2위, 전년대비 종합성적이 향상된 시·도에 수여되는 성취상(1위)을 받았다. 전남에서는 개인 부문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각각 79세 이하부, 69세 이하부 육상 포환던지기 에 출전한 김성봉·오이순 부부는 둘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은숙씨는 육상 트랙종목에서 49세 이하부 100m에서 14초70, 400m에서 1분 09초03 기록으로 금메달을 차지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59세 이하부 포환던지기 대회에 출전한 오만평씨는 지난해에 이어 금메달을 따냈다. 34개 종목 792명의 선수가 참가한 광주시는 메달 52개(금 15개, 은 11개, 동 26개)를 획득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보다 금메달 11개가 늘었다. 한·일 생활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 찾은 일본 생활체육 선수단 151명도 이번 대회 축구, 배드민턴,



전남도 선수단이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전남 일대에서 열린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서 메달 128개를 획득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종합 성적 1위는 경기도가, 2위는 전남도가 차지했다.

테니스, 배구 등 8개 종목에 참여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를 위해 이날 목포를 찾은 토모자와 요시히로 일본 테니스팀 감독은 "성대하고

멋진 한국의 생활체육대전 행사에 참석할 수 있어 뜻 깊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 따뜻한 환영을 해주셔서 감동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경남 김해에서 열린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2부 승격 도전’ 한국 아이스하키, 세계선수권 첫판 역전승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과 크로아티아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첫판에서 퍽을 다루고 있다. <국제아이스하키연맹 제공>

크로아티아에 5-2 승리...오늘 중국·내일 스페인과 경기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첫판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따냈다. 김우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27일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2025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1 그룹B(3부 리그) 크로아티아와의 첫판에서 5-2로 승리했다. 한국(세계 22위)은 크로아티아(32위)와 중국(26위), 스페인(30위), 에스토니아(28위), 리투아니아(25위)를 상대로 세계선수권대회 3부 리그에서 디비전1 그룹A(2부 리그) 승격을 노린다.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2부 리그로 승격하고 최하위에 그치면 디비전2 그룹A(4부 리그)로 강등

된다. 한국은 지난해 디비전1 그룹A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하위로 강등된 바 있다. 한국은 1피리어드 슈팅 숫자 21-3의 압도적인 우세에도 카를로 마린코비치에게 선제골을 얻어 맞고 골려졌다. 전열을 정비한 한국은 2피리어드 2분 29초 만에 이윤석이 상대 골리가 넘어진 틈을 놓치지 않고 퍽을 띄워 골네트를 흔들었다. 그리고 2피리어드 종료 5분 정도를 남기고는 안진희의 샷을 남희두가 방향만 바뀐 뒤 골문을 여는데 성공했다. 한국은 3피리어드 중반 패트릭 도브리지에게 원

타이머(논스톱) 골을 얻어맞고 다시 2-2 동점을 허용했다. 하지만 종료 4분을 남기고 김상엽의 강력한 리스트샷을 상대 골리가 간신히 막아내자 김건우가 가볍게 밀어 넣어 3-2로 앞서가는 결승골을 터트렸다. 크로아티아는 골대를 비우고 총공세를 벌이는 오프엔드 작전을 들고나왔고, 한국은 빈틈을 놓치지 않고 이만재와 김상욱이 연달아 골을 터뜨려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첫판을 기분 좋게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28일 중국과 대회 2차전을 벌인다. 이후 스페인(29일), 에스토니아(5월 1일), 리투아니아(5월 2일)를 차례대로 만난다. /연합뉴스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장성서 30일 개막

5월 2일까지 5000여명 참석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장성에서 열린다. 올해로 33회째를 맞이한 전남장애인체육대회는 '벽을 넘어 다함께, 하나되어 힘차게'를 주제로 선수 및 임원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개회식은 30일 오후 3시 30분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며 선수단 입장, 개회선언, 대회기 게양, 선서 순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육상, 파크골프, 게이트볼, 당구, 배구, 배드민턴 등 21개 종목으로 장성군 일원 21개 경

기장에서 펼쳐진다. 대회 기간동안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앞에서 선수단과 관람객이 함께 즐기는 장애인 뉴스포츠(보치아, 한궁) 체험부스와 스포츠재활체험관,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체전네트(AI 포토부스) 등 다양한 부스에 즐길 수 있다. 또 박서진,곽영광,성민지 등 유명 가수 등이 꾸리는 축하무대도 준비돼 있다. 전남도는 장애인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1열 좌석 앞에 휠체어 우선 공간을 마련하고, 환영리셉션 장소와 개회식 무대 동선을 최소화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오픈 챌린저 테니스대회’ 호주 쿠블러 우승

정현, 8강서 아쉽게 탈락

제이슨 쿠블러(307위·호주)가 '2025 ATP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총 상금 10만 달러를 두고 겨룬 광주오픈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렸다. 쿠블러는 27일 열린 대회 단식 결승에서 알리벵 카츠마조프(185위·러시아)와 3시간 6분간 맞선 끝에 2-1(7-5, 6-7, 6-3)로 승리하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쿠블러의 챌린저 우승은 이번 대회까지 9번째다. 쿠블러는 앞서 열린 단식 32강전에서 권순우(507위)를 2-0(6-3, 6-4)으로 이겼다. 16강전에서는 아담 윌튼(86위·호주)을 2-0(6-4, 6-1)으로, 8강전에서 휴고 그리니에르(프랑스)를 2-0(6-2, 6-1)으로 완파했다. 준결승전에서 트리스탄 스콜케이(122위·호주)를 만나 2-0(7-5, 6-4)으로 물리쳤다. 정현(438위)은 단식 본선 2회전에서 트로터 제임스(170위·일본)를 2-0(6-2, 7-6)으로 이기고 단식 8강에 올랐다. 정현은 광주오픈 5일째 단식 본선 3회전 스콜케



제이슨 쿠블러(호주)가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챌린저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트로피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이트와의 경기에서 0-2(3-6, 1-6)의 성적으로 완패하며 4강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정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총상금 20만 달러를 두고 겨루는 부산 오픈 챌린저 대회에서도 8강에 이름을 올렸으나 4강 진출은 실패했다. 대회 우승을 차지한 쿠블러는 시상식에서 "2세트가 힘든 경기였는데 많은 갤러리들의 응원에 힘입어 우승할 수 있었다"며 "볼 퍼슨과 심판, 대회 관계자 등 이번 대회를 만들어 준 모든 이들과 나를 향해 보내준 응원, 박수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즐거움

문화산책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창극단 특별기획공연 '풍류 in 광주'

일시 / 장소 : -04월 19일(토) 13:30, 15:00 / ACC 상상마당 -06월 07일(토) 13:30, 15:00 / 푸른길공원 -06월 14일(토) 13:30, 15:00 / 양산호수공원
문의 : 062-526-0363
*우천시 야외공연은 취소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GAC 공모전시 사모곡 비우면서 채우는... : 류현자 개인전

일시 : 2025-5-2(금) ~ 2025-6-1(일)
공연 있는 날 10:30 ~ 19:30
공연 없는 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